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일본 하구로 산 (羽黒山) 삼나무 숲

일본 도호쿠 지방의 남서부 동해연안에 위치한 하구로산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원장

일본 도호쿠 지방의 남서부 동해연안에 있는 하구로산은 야마가타현에 있다. 야마가타현은 도쿄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온천, 쌀, 일본체리가 유명하고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강설량 491cm으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숲 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데와삼산(出羽三山)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데와삼산은 갓 산(月山), 하구로 산(羽黒山), 유도노 산(湯殿山)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으로 산악신앙의 역사가 깊은 곳이다.

이중 연중 출입이 가능한 산은 하구로 산 뿐이며, 갓 산(1984m)과 유도노 산(1500m)은 눈이 많이 내려 입산이 금지되는데 갓 산의 경우 여름까지 스키를 탈 수 있어 여름 스키장으로 유명하다.



사진 2 = 천연기념물 할아버지 삼나무



사진 3 = 긴잔온천(銀山泉) 전경

겨울에 입산이 가능한 하구로 산은 해발 414m로 593년부터 기도처로 개산이 된 산이다.

14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도처로 많은 참배객들이 찾는 산이며, 산정상부에 데와삼산의 신을 모신 삼신합제전(三神合祭殿) 신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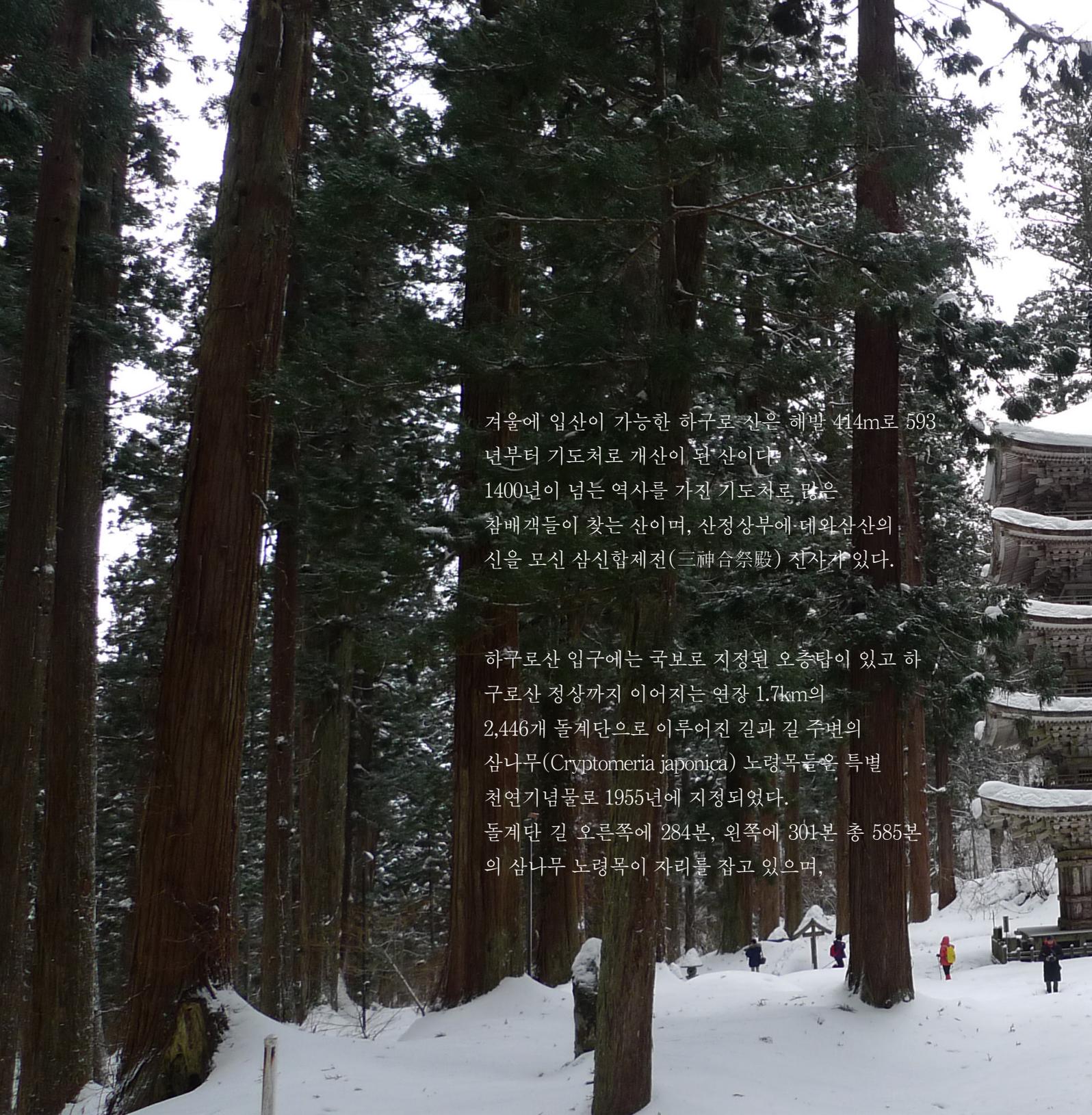
하구로산 입구에는 국보로 지정된 오층탑이 있고 하구로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연장 1.7km의 2,446개 돌계단으로 이루어진 길과 길 주변의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 노령목들은 특별 천연기념물로 1955년에 지정되었다.

돌계단 길 오른쪽에 284본, 왼쪽에 301본 총 585본의 삼나무 노령목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수령은 300~500년 사이로 추정된다.

일본 도호쿠 지방의 남서부 동해연안에 있는 하구로산은 야마가타현에 있다. 야마가타현은 도쿄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온천, 쌀, 일본체리가 유명하고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강설량 491cm으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숲 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데와삼산(出羽三山)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데와삼산은 갓산(月山), 하구로산(羽黒山), 유도노산(湯殿山)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으로 산악신앙의 역사가 깊은 곳이다.

이중 연중 출입이 가능한 산은 하구로산 뿐이며, 갓산(1984m)과 유도노산(1500m)은 눈이 많이 내려 입산이 금지되는데 갓산의 경우 여름까지 스키를 탈 수 있어 여름 스키장으로 유명하다.



겨울에 입산이 가능한 하구로 산은 해발 414m로 593년(기원전 1400년)부터 기도처로 개산이 된 산이다. 14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도처로 많은 참배객들이 찾는 산이며, 산정상부에 대외삼산의 신을 모신 삼신합제전(三神合祭殿) 진자가 있다.

하구로산 입구에는 국보로 지정된 오층탑이 있고 하구로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연장 1.7km의 2,446개 돌계단으로 이루어진 길과 길 주변의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 노령목들은 특별 천연기념물로 1955년에 지정되었다. 돌계단 길 오른쪽에 284본, 왼쪽에 301본 총 585본의 삼나무 노령목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수령은 300~500년 사이로 추정이 된다. 오층 목탑을 지나면 하구로 산 위로 올라가는 가파른 돌계단 길이 나오는데 겨울에는 돌계단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려 가파른 눈길로 바뀌어 이곳이 돌계단 길임을 알 수는 없지만, 커다란 삼나무들이 2열로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면 이곳이 돌계단 길인 것을 알 수 있다.

사면에 자란 삼나무 뿌리가 굵고 길게 자라고, 그 위로 커다란 줄기가 높이 자라고 있는 모습은 삼나무의 강인한 힘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듯하다. 붉은 줄기의 커다란 삼나무가 하얀 눈을 맞고 눈길 좌우로 서있는 모습은 마치 붉은 기둥을 세워 놓은 것 같다.



사진 4 = 삼나무 숲속의 국보 오층목탑

중간중간에 자라고 있는 활엽수인 너도밤나무 (Fagus crenata)의 앙상한 가지와 줄기가 색다른 느낌을 준다. 급경사에 자라는 나무들의 줄기가 L자형으로 자라고 있는 모양은 눈이 많이 오는 이 지역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경사가 심한 곳을 지나 평평한 곳으로 들어서면 굽기가 한 아름 되는 삼나무 숲이 나타난다. 한겨울에는 줄기 한가운데만 하얀 눈이 쌓여 나무에 하얀 페인트를 일자로 칠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



사진 5 = 삼나무 숲 사이로 난 돌계단

커다란 삼나무 줄기에 부착된 철제 밴드는 줄기가 갈라져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특별천연기념물과 방문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산 위에 도달을 하면 지대가 평평해지면서 신사가 나오는데 신사 전체가 하얀눈으로 덮여있고, 신사 주변으로는 커다란 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커다란 삼나무에 눈이 가득 쌓여있어 하얀 꽃이 가득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줄기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고 땅도 눈으로 가득 차 있어 마치 겨울왕국에 온 것처럼 보인다. 도로 좌우로 사람 키보다 높게 눈이 쌓여있어 여기가 눈이 많이 오는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6 = 삼나무 대경목 사이의 눈 덮인 숲길

사진 7 = 일자로 칠한 것처럼 보이는 삼나무 줄기



사진 8 = 삼나무 대경목 사이의 눈 덮인 숲길

사진 7 = 일자로 칠한 것처럼 보이는 삼나무 줄기



하구로 산은 해발은 낮지만 데와삼산중의 하나로
산악신앙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보 오층 목탑, 삼나무 천연기념물, 돌계단
길과 삼나무 노령목 특별 천연기념물 등이 있고
신사가 있어 많은 참배객이 찾는 산이기도 하다.

특히 계단이 2,000개가 넘는 돌계단길과 길
양쪽에 줄지어 서있는 수령 수백 년이 되는
삼나무 대경목으로 이루어진 숲길은

하구로 산을 대표하는 명품 숲길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역사, 문화, 종교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하구로 산의 삼나무 숲은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숲으로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

